토요피닉스 테니스 클럽

‘건강 충만’ 스매싱

1991년 창단 … 초대회장 지낸 박용남 고문 클럽 산파 역할

20대~60대 세대 공감 스포츠 … 이웃돕기 선행에도 ‘앞장’

헉! 헉! 파이팅!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상록 테니스코트.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어슴프레 깔리는 어둠과 함께 환하게 조명을 밝힌 코트에서는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복식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있었다.

비가 온다는 예보를 무시하고 테니스 코트를 찾은 주인공들은 광주·전남 최강의 테니스 동호회 클럽인 ‘광주 토요피닉스 테니스 클럽 회원들’.

광주시내 16개의 테니스 클럽이 있지만 감히 최강이라고 말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랭킹 5위에 들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토요피닉스 클럽은 창단해인 1991년 총장배 승자전 우승, 96년 광주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 회장배 단체전 우승 등 매년 광주·전남 대회를 비롯한 전국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도맡아 하며 명성을 떨치고 있다.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기 때문인지 토요피닉스 테니스 클럽에는 여성회원들이 단 한명도 없다.

김 선규(48·광주 동신고 교사)회장은 “저희 클럽이 초보자들이 없는 중급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성회원들을 받지 못했다”며 “일부러 여성회원들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웃었다.

토요피닉스 테니스 클럽은 이처럼 여성회원들이 없는 남성 전용테니스 클럽으로 회원들 간의 결속력이 강하고 77명에 달하는 회원수도 큰 자랑거리다.

또한 지난 2006년 입부한 정승환(26)막내 회원부터 박용남 고문까지 20대후반~60대 중반까지 각 세대가 어우러져 있는 것도 토요피닉스 클럽만의 장점이다.

지난 1991년 7월 전남도교육청 코트에서 회원간 친목과 테니스 기량 향상을 위해 창단할 때는 ‘토요테니스’ 클럽이었으나 지난 1997년 회원이 늘면서 ‘토요피닉스’로 명칭을 바꿨다.

박용남(64) 고문은 초대 회장과 3대 회장을 지냈으며 ‘토요피닉스’ 클럽의 산파 역할을 했다. 지금도 젊은이들 못지 않게 매번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 회원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박 고문은 “처음 창단할 때는 18명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회원들이 늘었다”며 “테니스를 통한 모임이라 가족같은 끈끈한 정들이 우리 클럽의 장점이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조직체계가 어느 대기업 못지 않다. 회장을 비롯해 고문, 감사, 부회장, 자문위원, 총무, 경기, 재무, 홍보, 섭외, 시설, 정보관리, 지도부 등으로 세분화 돼 톱니바퀴 맞물리듯 돌아가기 때문에 회원들의 토요피닉스클럽에 대한 애착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이들은 매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10시까지 상록 테니스코트에서 땀을 흘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4시~8시까지 테니스를 통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이들은 퇴근 후 테니스 코트를 찾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후 이경철·유호원·장봉현 지도부로부터 테니스의 기술적인 것에 대한 연습을 하고 게임에 들어간다.

상록테니스 코트 한 켠에 자리잡은 라커는 회원들이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환담을 나누면서 세상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77명의 회원이 있지만 주중과 주말 모임에는 40여명의 회원들이 출석한다. 코트의 면수가 3면이나 4면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어 회원이 너무 많이 나와도 고민이다.

김 회장은 “회원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활동해 어떤 때는 게임을 즐기지 못하고 환담만 하다 돌아갈 때도 있다”며 “좀 더 많은 코트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부회장 김정범(48) 회원은 토요피닉스 클럽의 일명 ‘지킴이’로 불리운다. 전국대회 우승 경력자로 실력로 최강이지만 단 한번도 모임을 거르지 않고 출석해 회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심정엽(41)회원은 전국에 알려진 고수로 선수보다 더 잘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며 피닉스 클럽의 살림꾼이다. 10년 경력의 마평옥(44)총무이사는 전국대회 준우승의 경력과 클럽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토요피닉스 테니스 클럽은 실력만 최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도 최강이다. 배상철 회원의 부인을 통해 회원모두가 매달 5천원씩 적립해 소년·소녀 가장돕기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매년 4월에는 토요피닉스 테니스클럽배 대회를 개최해 수익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다.

김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소년·소녀가장과 독거 노인들을 돕고 있어 항상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테니스 본연의 클럽활동 외에도 작은 마음을 모아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도 확대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최고의 실력을 갖춘 토요피닉스테니스클럽 회원들이 장마 예보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상록테니스코트를 찾아 게임 준비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